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AN EXPOSITION ON
THE EPISTLES TO THE PHILIPPIANS
AND TO THE COLOSSIANS

[2판]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20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 사도 바울(갈 3:6; 딤후 3:16)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된 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의 헬라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다.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기독교 신앙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말잔치보다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 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성도는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내용 목차

빌립보서

| | |
|------------------|----|
| 서론 | 6 |
| 1장: 기쁨의 간증 | 7 |
| 2장: 기쁨의 봉사 | 22 |
| 3장: 기쁨의 이유 | 37 |
| 3장: 기쁨의 열매 | 49 |

골로새서

| | |
|-------------------------|-----|
| 서론 | 72 |
| 1장: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 73 |
| 2장: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하심 | 95 |
| 3장: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 | 109 |
| 3장: 그리스도의 일꾼들 | 134 |

빌립보서

서론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1:1). 사도 바울이 본서의 저자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폴리갑,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티툴리안 등은 본 서신을 인용하였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61년 말경일 것이다. 본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옥중 서신(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던 것 같다.

빌립보서의 **특징적 주제**는 기쁨이다. 본 서신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서신이다. 이 짧은 서신에 ‘기뻐한다’는 말이 8회, ‘기쁨’이라는 말이 5회나 사용되고 있다. 본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장, 기쁨의 간증 (복음의 진보)
- 2장, 기쁨의 봉사 (복음을 위한 고난), 일치와 겸손에 대한 교훈
- 3장, 기쁨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
- 4장, 기쁨의 열매 (성도들과 헌금), 기뻐하라는 권면

1장: 기쁨의 간증

1-11절, 바울의 감사와 기도

[1-2절] 그리스도 예수와 **종(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종들’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그의 조력자인 디모데가 항상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역자임을 보인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또한 신구약 성경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성경에 정통하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교훈을 순종하는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졌다.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었다.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롭고 귀하다. 성경은 그들을 위해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성경은 일차적으로 목사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표현대로, 모든 성도들은 성경책을 날마다 열심히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한다(1:8). 또 빌립보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도 있었다. 감독은 양들을 보살피는 직분이다.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이다(행 20:17, 28).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라고 불린다. 집사는 헌금 수금과 지출에 관한 일을 하는 직분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나님

빌립보서 1장: 기쁨의 간증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기원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씻음과 거듭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얻어 지식과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변화되고 실생활이 더 거룩해져야 할 것이다. 또 평안은 일차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몸의 건강과 물질적 유여함, 그리고 환경적 평화와 안정까지도 내포할 것이다.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3-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그때 곧 그들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던 그 날부터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당시까지, 주후 50년경부터 61년경까지 약 11년간일 것이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는 원어(테 코이노니아 히몬 에이스 토 유앙겔리온 τῆ κοινωνία ὑμῶν εἰς τὸ εὐαγγέλιον)는 ‘복음에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본다(NASB, NIV). 복음에 참여했다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7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였고 또 현금으로 후원하였다(4:15).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빌립보 교인들 속에 주신 구원 곧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가리킨다고 본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시다. 그는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구원하신다. 그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히브리서 12:2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主)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의 주’라는 말은 ‘시작자’라는 뜻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완성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그의 재림의 날까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7-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확신을 가진 근거는, 그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때 그들이 그와 함께 입장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단들로부터 복음을 변호하였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입장을 같이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고 또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하였다.

[9-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분별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인정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열거하였다. 첫째로, 그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였다. ‘총명’이라는 원어(아이스데시스 αἴσθησις)는 ‘분별력’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우리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잘못된 열심을 갖게 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얼마큼 세속적이어도 괜찮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 가장 선한 것을 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 세상의 일들 중에 믿음과 영혼 구원의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는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며 일주일에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시간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썩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일만 썩지 않고 영생하는 일이다. 주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 6:27, 29). 그러므로 믿음의 일은 성도의 본업이요 그 외의 일들은 다 부업이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였다. ‘진실하여’라는 원어(에일리크리네스 εἰλικρινεῖς)는 ‘햇빛에 비추어 입증된, 순수한’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밝은 태양 빛 아래서 한 점의 흠이 없을 정도로 진실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14에서 주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교훈하였다.

빌립보서 1장: 기쁨의 간증

셋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주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나게 한다. 주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가 주신 의(義)와 생명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될 것을 확신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성화를 이룰 것이며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자.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변명과 확정에 참여했고 또 후원도 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심정은 더욱 깊어졌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고 복음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셋째로, 우리는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자. 바울은 교인들이 지식과 분별력 있는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다. 우리도 지식과 분별력 있는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자.

12-19절, 기쁨의 간증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일을 가리킨다.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의 일이 후퇴하지 않고 도리어 진전되고 확장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종들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섭리하신다(롬 8:28). 고난은 보통 우리의 인격을 깨끗케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음의 일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복음의 진전과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13-14절] 이렇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시위대’(프라이토리온 πραιτώριον)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시위대 뜰을 가리킨다고 본다(BDAG). 사도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그가 옥에 갇힌 것이 그의 어떤 잘못 때문인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나 ‘형제 중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형제 중 다수’에 연결되는 말이라고 본다(KJV, NIV). 담대히 전도한 자들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다. ‘나의 매임을 인하여 . . . 신뢰하므로’라는 말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의 진실성은 그의 옥에 갇힘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복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담력 있는 증거를 낳았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다.

[15-17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질투와 경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전통본문은 16절과 17절의 순서가 반대다(Byz, KJV). 전도를 하는 데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질투와 경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질투하며 그와 경쟁하는 마음으로 일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참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전도하였다.

전자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옥에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럽지만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동기는 경쟁심과 이기적 야망이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거나 구원할 영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들의 이름과 명예가 중요했다. 이런 자들이 진실한 신자이었을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 복음을 변명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듯이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는 것을 가리켰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변호해야 했다. 사탄은 때때로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듯하면서 교묘히 그것을 가감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려 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전파와 변호의 일을 다 감당하여야 한다. 교리적 논쟁을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복음의 변호가 실패하면 복음의 전파도 헛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므로, 또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사랑하므로, 또 죄와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므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일 것이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이들은 겉모습으로만 전도했고, 어떤 이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말한다. 감옥이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고 감옥이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르게 전파된다면, 심지어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전도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주의 교회나 천주교회와 협력하며 전도하는 방식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후 6:14-17). 단지 본문의 뜻은, 비록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를 바르게만 전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절] [이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영]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린[도]들이니라.

본문은 앞절에서 말한 그의 기쁨함의 이유를 제시한다. ‘이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위대 안에서 전파되는 것을 가리

킨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리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 곧 삼위일체의 신비를 나타낸다.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보인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내 구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복음이 시위대 안에 전파됨으로 또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풀려날 것이다. 바울은 그 일을 내다보며 또한 기뻐한다.

[20-21절]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내용은 그가 아무 일에도든지 부끄럽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 일에도든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범사에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한다. 성도는 진실과 의를 생명으로 여기며 범사에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게 하기를 항상 그리고 담대히 원하였다. 그것이 그의 생활 신조이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본받을 만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한 까닭은 그가 사는 것이 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갈라디아서 2:20에서도 비슷하게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만 위한다면 사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은 복음에 진보가 되었다. 비록 그가 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시위대 안에서 확장되었고 많은 형제들이 도리어 분발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의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했었다(창 50:20).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나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롬 8:28).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전도할 때 결코 경쟁심이나 외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멸망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복음이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마 28:19; 막 16:15; 눅 24:47; 행 1:8). 비록 고통 있는 전도자나 교인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시기를 소원해야 한다.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영혼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 것이며,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더 좋은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하고 복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고린도후서 5: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소원해야 한다.

22-30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2-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연장을 뜻하며, ‘내 일의 열매’라는 말은 그가 살면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인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며 또 그 둘 중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즉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성도는 죽으면 즉시 천국에 들어가며 그리스도께로 간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회개한 한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눅 23:43).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8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증거하였다. 성도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뵈옵는 것은 참으로 사모할 만한 일이다. 천국은 이 수고로운 세상, 광야와 같고 눈물 골짜기와 같고 죽음의 그늘진 땅인 이 세상보다 더 사모할 만한 곳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친 곳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유익하다’는 원어(아나카이오스 ἀναγκαίος)는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리라.”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교회 곧 성도들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25-26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성장]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량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진보[성장]와 기쁨을 위하여’—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이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다. 만일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해서 더 이상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할 일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 필요성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거할 것임을 알았다. 26절의 ‘자량’이라는 원어(카우케마 *καύχημα*)는 ‘기쁨’으로 번역할 수 있다(KJV, NIV). 문맥상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기쁨이 자신으로 인해 풍성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신아들룬테스 *συναθλοῦντες*)[함께 싸우는](KJV, NASB, NIV)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소식이다.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며 사죄(赦罪)와 칭의(稱義)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의(義)에 일치하게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변호하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어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4:1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교훈하였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방향(거룩, 의, 선)이 있다. 우리는 그 방향을 거슬러 행하지 말고 그 방향대로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복음 신앙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하고(고전 1:10; 빌 2:2),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는 일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활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12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교훈했고, 디모데후서 4:7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다. 유다는 유다서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교훈하였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의 보수와 변호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표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또 한가지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믿으려 할 때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과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일과 전도의 일에는 환난과 핍박이 예상된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표이며, 그것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표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는 말은 이렇게 진실히 믿고 핍박까지 당하는 것

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고전 4:7). 우리의 우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고전 15:10).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도, 또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29-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속에는 당연히 그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것이 포함된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조롱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삶이다. 주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셨다(마 5:11-12).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고난과 싸움이 있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자신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당한 고난을 자세히 증거하였다(고전 4:9-13; 고후 6:4-10; 11:23-27).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교회도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교회이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그러하였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 우리는 주께서 회개한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

빌립보서 1장: 기쁨의 간증

주의 얼굴을 뵈울 것이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담대히 원해야 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 때문이다. 주께서는 친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요 3:16).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3:24). 믿음의 의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된다.

둘째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했다. 로마서 14:7-8,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모든 죄를 버리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특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복음 신앙을 위해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변호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천주교회와 이단 종파들뿐 아니라,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의 용납과 복음주의의 타협과 은사주의의 혼란과 세속적 교회음악(CCM)과 열린 예배의 풍조가 교회들 속에 만연해 있다. 참된 교회들은 이런 배교와 타협과 혼란과 싸워야 한다. 이것이 근본주의적 장로교회가 취하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 입장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즐거이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위해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2장: 기쁨의 봉사

1-11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1-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명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있을진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또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라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어떤 권면이나 격려나 위로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유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권면을 유념해야 한다.

바울은 우선 일심단합하라고 권면한다. ‘같이하여,’ ‘같은 사랑,’ ‘합하여,’ ‘한 마음’ 등 같은 뜻의 말이 네 번 반복되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강조했다. 분열은 육신의 일이며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 분열하는 자는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교회의 일치는 진리 안에서의 일치이다. 이단과 정통이 하나되는 것을 말하거나 교회와 세상이 하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연합운동은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들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옛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후의 바벨탑 운동과 같다. 형제 사랑을 강조한 요한일서도 바른 신앙과 이단을 구별하고 형제 사랑이 바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했다(요일 4:1).

사도 바울은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면한다. ‘다툼’이라는 원어는 당파심 혹은 이기적 야망이라는 뜻이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서 지나친 경쟁심은 좋지 않다. 또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들며 이루기를 소원해야 한다. 또 사람이 겸손하려면,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의 자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는 다른 이의 약점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장점을 보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도 돌아보라고 권면한다. 다른 이들의 일이란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일을 가리킨다.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적 마음가짐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겸손히 일치단합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힘쓰는 것을 봄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목회자들의 기쁨은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요한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며 그러한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말했다(요이 4; 요삼 3-4).

[5-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여기지 않으셨으니(원문 직역)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들어 겸손을 교훈하였다.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 그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얻으신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神性)을 믿는다. 그는 이사야

9:6에서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릴 한 아기로 출생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미가 5:2에서는 그의 근본이 상고에, 태초에인 인물로 예언되었다. 요한복음은 그의 신성을 풍성하게 증거한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되었고(1:1)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친히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고(5:17-18),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연대가 영원 전부터임을 암시하셨고(8:58), 또 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고(10:30), 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고(14:9),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17:5). 사도 바울은 디도서 2:13에서 그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20에서 그를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요한계시록 1:17에 보면, 그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12-13에서도 그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그가 그의 신성(神性)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그의 신적 속성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보류하셨다는 뜻이라고 본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비천한 마구간에서 사람으로 출생하셨고, 인간 부모 밑에서, 목수인 요셉의 돌봄 아래서 30년 동안 조용하게 순종하며 사셨고, 그가 전도사역을 하실 때에도 죄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생활을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이다(요 1:14).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이다.

[9-11절] 이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 그의 인성(人性)은 부활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는 부활하신 후 지극히 크신 신성의 영광을 받으셨다.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를 주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올린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치단합하여 서로 교제하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이기적 욕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에 임하여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태복음 11:29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교훈하셨다(마 16:24).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산 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다 주라고 불리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 그는 지극히 낮아지셨으나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다. 디모데후서 2:11-12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2-18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라는 원어(카도스 판토데 휘페쿠사테 καθὼς πάντοτε ὑπηκούσατε)는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바와 같이’라는 뜻이다 (KJV, NASB, NIV). 원문대로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바와 같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었고 항상 복종했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복종이 지금 그가 떠나 있는 때에도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선언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죄의 결과는 매우 고통스런 불행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구원’은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믿은 이들은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을 얻었다(롬 3:24; 히 10:10, 14). 우리가 받은 의와 거룩함은 완전하다. 그것은 법적인 의미이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순종의 선한 행위가 구원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의를 이루셨고 그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필요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오직 믿음으로 감사히 받고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

야 할 뿐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밝히 증거했다.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4-5,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곧 이미 받은 의(義)에 일치하는 인격이 되고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다. 즉 순종의 생활을 가리킨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이 성화(聖化)의 과정이다. 우리의 성화는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이며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우리는 완전을 목표로 한 성화를 위해 소극적이거나 게으르지 말고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후에 즉시 우리의 순종 생활 즉 성화의 노력과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주의 피로 구속(救贖)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로마서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활동은 우리의 자발적 소원과 노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께서는 사람의 자유 의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한다. 경건해지려는 소원, 거룩해지려는 소원, 의로워 지려는 소원, 선해지려는 소원,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며 성령의 감동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남아 있는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하고 선한 소원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그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다툼]가 없이 하라.

구원을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예를 들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 즉 불평과 다툼을 삼가야 한다. 주께서는 일보다 우리의 성화된 인격을 더 원하신다. 원망, 불평, 분쟁은 인격의 흠과 결함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흠과 결함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를 위해 봉사할 때에 원망, 불평, 분쟁을 버리고 항상 사랑과 협력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화의 목표는 한마디로 ‘흠 없는 인격과 삶’이다. 이 세상은 항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바른 표준에서 볼 때 언제나 비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 세상은 경건 대신 불경건을 택하고, 거룩 대신 더러움을 구하며, 의(義) 대신 불의를, 선(善) 대신 악을 따르며, 또 진실 대신 거짓을 택하는 세상이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부패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사회개혁을 부르짖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 성도들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답게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는 바로 실제적인 경건과 거룩을 의미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삶은 이렇게 흠 없고 순전한 삶, 즉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다. 그런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도덕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부른다(요 1:5; 뵤전 2:9). 어두움은 무지와 부도덕과 슬픔을 가리킨다. 그러나 구원은 빛이다. 그것은 지식과 도덕성과 기쁨의 회복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의 구원받은 삶, 성화의 삶, 선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밝힌다’는 원어(에페코 ἐπέχω)는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뜻이거나(Thayer, KJV, NIV) ‘붙든다’(BDAG, NASB)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것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하였던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다. 구원은 새 생명이며 새 생활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악된 옛 습관과 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새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닐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흠 없는 생활을 할 때, 생명의 말씀의 참됨이 드러난다.

만일 성도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는 헛되고 그들의 사역은 열매 없는 사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빛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 성도들은 전도자들의 기쁨과 자랑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의 끝부분에서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4:1). 데살로니가전서 2:19-20에서도 그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했다. 참된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쁨과 자랑이다.

[17-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 지라도[내가 붓는 제물로 드러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믿음의 제물과 봉사’란 ‘믿음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를 가리킨다. 빌립보 교인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주께 드리며 주의 일을 위해 즐거이 봉사하였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일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 위에 자신이 붓는 제물로 드러질지라도 기뻐하겠다고 말한다. ‘자신이 붓는 제물로 드러진다’는 말은 그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불평스런 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헌신과 봉사이었다. 옥에 갇혀 있는 그는 죽을 각오를 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오,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는 나의 생명이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 위에 부어질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은 기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다. 다윗은 시편 16:11에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갈 5:22). 천국은 기쁨의 세계이다(롬 14:17).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다. 구원은 행복한 일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이었다.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하였다. 또 그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였다. 이 기쁨은 오늘 우리의 것이다.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천국 소망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합당하게 주께 순종하며 흠 없는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이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법적인 구원, 곧 완전한 의(義)에 일치하는 인격과 삶을 현실 속에서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화(聖化)이다.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義)를 우리의 삶 속에서 흠 없는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얻은 의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다. 이것은 과거의 죄악된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세상은 악하며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하며 이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화는 우리의 성화의 정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상이 되고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성도의 성화의 삶, 곧 순종의 삶은 결코 무겁고 엄숙한 일만이 아니고 매우 기쁜 일이다. 구원에 합당한 삶, 곧 흠 없는 삶을 살고자 순종하며 애쓰는 자들은 이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항상 기뻐해야 한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19-30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19-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램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同役者)이었다.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자이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고 생각과 정신을 같이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복이다. 아모스 3:3,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同行)하겠으며.”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 곧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이었다. 육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뜻을 같이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 참된 일꾼은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일꾼들은 많으나 충성된 일꾼은 드문 것 같다.

[21-24절] [이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본문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인 이유를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성도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는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원어(도키메 δοκιμή)는 ‘시험된 인품, 증명된 인품’이라는 뜻이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충성됨과 신실함이 증명되었다. 그의 신앙 인격은 진실한 교인들에게 알려졌고 인정을 받았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므로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그의 입과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디모데이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 자신의 소식을 전하며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게 하기를 원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가 또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던 자이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형제이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한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영혼 구원의 전도는 마귀와 죄와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며, 특히,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이 그러하다.

군인들은 전쟁 때를 위하여 잘 훈련되어야 한다. 성도들의 훈련은 성경말씀들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생활이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성도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훈련과 죽음을 각오한 정신이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죽음의 싸움터에도 용기 있게 나가야 한다. 성도들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에게 왔던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고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의 병든 소식으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심히 근심하였다. 사랑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염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바로 그런 사랑의 심령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을 위한 이런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육신은 참으로 약하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울 사도라 하더라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 주셨던 병 고침의 은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사람의 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달려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고치지 못할 병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14-16에서 이렇게 교훈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병들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시 마음에 거리끼는 실수나 부족이나 죄가 있으면 다 고백하고 버리기를 결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의약적 치료도 감사히 사용할 수 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열심히, eagerly(NASB), eager(NIV)]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공화로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하자 열심히 권하여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봄으로써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심할까봐 염려했던 바울의 근심도 덜게 될 것이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표현된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부탁한다. ‘모든 기쁨으로’라는 말은 마지못해 하는 영접이 아니고 진심에서 나오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영접하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만 국한해 말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한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군대에서는 좋은 장교들과 지휘관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일 그런 자들이 없다면, 교회는 바른 복음 전파의 계승과 충실한 목양 사역을 잃어버리고 쇠약해지고 변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런 자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을병에 걸렸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일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는 참으로 후대의 교회를 위해 희생적 봉사의 모범이 되었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하셨다. 그것은 오늘날도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교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게 충성하라고 명하신다. 무엇이 충성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죽는 것이 참된 충성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 첫째로,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자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대신에 자기 일을 구할 때 자기 일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증명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좋은 성도와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의 풍조이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까지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돕는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을 가리킨 것 같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이런 충성된 종들과 일꾼들을 온전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마 10:40, 42),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5:40).

3장: 기쁨의 이유

1-9절, 내가 가진 의(義)

[1절]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옥에 갇힌 바울은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지만 기뻐했고(빌 2:17)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쁨의 이유와 원천을 보인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며 원천이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건강도, 돈도, 육신의 아름다움도, 쾌락도, 세상 권세도 다 일시적이며 어느 날 없어지는 것들이다.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에도 그것들은 참 기쁨이 되지 못한다. 참 기쁨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평안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쁨은 기쁨 후에, 아니 기쁨 중에도, 때때로 슬픔과 허전함이 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유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즉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이다. 모든 슬픔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이다. 죄가 없는 천국은 기쁨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영원히,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표현한다. 진리의 교훈은, 비록 이전부터 잘 아는 내용일지라도, 귀하고 안전하다. 새로운 교훈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쉽다. 그

런 점에서 엿것, 곧 잘 아는 성경적 교훈이 안전하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레당을 삼가라.

‘개들’은 도덕성이 없고 남을 물어뜯듯이 해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다. 이단자들은 사상적 변질을 줄 뿐 아니라 도덕적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정당하게 교리적 토론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형제를 거짓으로 비방하고 폭력적이다. ‘손(損)할레당’이라는 원어(카타토메 κατατομή)는 ‘절단자’라는 뜻으로 할레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몸만 상하게 한 자, 즉 거짓 할레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할레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비꼬아 한 말이라고 본다. 그들은 참 경건도 도덕성도 없는 자들이었다. 성도들은 그런 이단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3절] 하나님의 성령[영]으로 봉사하며[예배하며](KJV, NASB, NIV)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레당이라.

할레의 참 뜻은 마음의 성결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중생(重生)과 성화(聖化)를 상징하였다고 본다. 참으로 중생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참 할레당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 또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성도는 자신들이 죄악되고 허무하고 무가치함을 아는 자들이므로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의(義)와 거룩과 완전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위로와 힘과 기쁨이시기 때문이다.

[4-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저 율법주의 교사들처럼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이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며 배냐민 지파 족속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외적으로는 흠 없는 자이었고 열심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한 자이었다.

[7-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혹은 ‘쓰레기’]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즉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혈통,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의(義) 등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혹은 쓰레기로 여긴다고 말한다. 사람의 외모, 학력, 재산, 건강, 가문, 경력, 사회 신분 등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구약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전쟁이나 지진이나 무서운 전염병 등으로 죽거나 비천해질 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더욱이, 그것들은 신앙에 방해거리이다. 그것들은 사람을 교만케 만들고 영적인 일들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쓰레기같이 여겼다.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쓰레기같이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세상것들을 쓰레기로 여겼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를 최고의 가치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말한다. 성도가 가진 의(義)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

빌립보서 3장: 기쁨의 이유

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요점이요 기독교의 진수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해설되고 강조된 복음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세상것들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요일 2:15-17).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데마처럼 어느 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딤후 4:10). 아무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마 10:38; 눅 14:26-27, 33).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갈 6:14).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자. 성도의 기쁨은 헛된 세상것들 때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단들을 삼가야 한다. 그들은 사상적 변질을 가져오고 구원 대신 멸망으로 이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일꾼들이며(고후 11:3-4, 13-15) 신적 구주 예수님과 대속 사역을 부정한 자들이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며 멸망케 할 이단들이다(갈 1:6-9; 벧후 2:1). 또 그들은 도덕적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믿는 성도를 비방하고 해친다. 그것은 자신이 이단인 증거다. 당시 유대 교인들, 그 후 천주교인들, 이슬람 교인들, 각종 이단들이 그러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이다(롬 3:21-24; 10:2-4; 갈 2:16).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의 지식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내용이다. 이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길 만한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에 불과하다.

10-16절, 부름의 상을 위하여

[10-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 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그의 성육신(成肉身), 그의 독특한 인격, 그의 속죄사역, 그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깊고 신비하다. 사도 바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사건이었다. 그의 부활체는 장차 성도의 부활체와 영생활 몸의 모습이었다. 장차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나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도 고난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듯이, 우리 모두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미래의 사건이다. 그것은 육신적, 도덕적 완전 상태, 곧 완전 성화 상태이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직 불완전한 성화 상태에 있다. 성도에게는 아직도 육신의 연약성이 남아 있다. 성도의 기쁨과 평안도 세상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위축된다. 사도 바울은 아직 부활을 얻었거나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하여 달음질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인 영광스런 몸

의 구속(救贖) 곧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작성된 복이다.

성도의 삶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로 간주된다. 그 구원은 법적으로 완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義)는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스런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지만, 우리는 그 날을 위해 현재 성화(聖化)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성도들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22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였고, 갈라디아서 6:8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하였다.

[13-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ἓν ἔν)[한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¹⁾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신앙생활에는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이다. 누가복음 10:42의 전통사본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요한복음 6:27, 29에 보면,

1) ‘상’이라는 원어(브라베이온 βραβεῖον)는 경주장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 같은 상을 가리킨다(고전 9:24). 그것은 신앙의 기본적 달음질의 결과로 약속된 상이다.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 빈번히 나오는 ‘보상, 값, 대가’의 개념인 ‘상’이라는 원어(미스도스 μισθός)와 구별되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다른 모든 일은 ‘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가지 일은 앞에 있는 뜻대 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는 그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 곧 영광스런 부활과 영생이다.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얻은 의(義)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 즉 ‘완전 성화’이다.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한다. 성도는 잘한 일이든지 못한 일이든지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성도는 지나간 날들에 잘못된 일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씻음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도는 오직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성경 교훈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원어(텔레이오이 τέλειοι)는 ‘완전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6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말했다. 성도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법적 완전이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해졌다. 히브리서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테텔레이오켄 τετελείωκεν).” 물론, 이 완전은 실제적인 완전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1:28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하였다. 성도가 법적으로 얻은 완전한 의(義)는 자만

(自滿)이나 나태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무엇을 얻었거나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즉 도덕적 완전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야 한다(벧후 1:10).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같은 규칙으로 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자(전통사본).²⁾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화(聖化)의 정도가 어떠한지 간에, 우리의 인격 형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간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한 나태하거나 해이해지지도 말고 오직 신앙의 목표인 부활과 영생을 위하여, 즉 완전 성화를 위하여 진지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는 동일하다. 그것은 영광스런 부활과 영생이며 완전 성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능력으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셨다. 우리에게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한가지뿐이다. 그것은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완전 성화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을 중시하신다. 우리는 지금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 즉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자취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 즉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인 복되고 영광스런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완전한 의를 얻었고 거룩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인격과 삶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2) Byz (D* it^d vg) syr^(p) (arm) 등에 있음.

17-21절, 나를 본받으라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스코페이테 σκοπεῖτε)[주목하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두 가지 점을 포함할 것이다. 첫째는 이신칭의(以信稱義)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확신이며, 둘째는 완전성화(聖化)를 위한 정직한 달음질이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에게 생명적 진리이다. 또 완전 성화를 위한 정직한 달음질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義)만 확신하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난 중에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힘써 달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믿음과 그의 달음질을 본받으라고 담대히 권면한다.

그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있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완전 성화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는 성경 교훈대로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이다.

[18절]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행함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무효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또 그러면서 저 행위구원론자들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핍박하였다. 저런 거짓 교사들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고 그의 원수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히 언급하며 논박하였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저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생애는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또한 바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때때로 싸워야 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고 또한 2천년 교회의 역사이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배교자들과 또 그들과 타협하는 불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들일 것이다. 오늘날도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은 저 배교자들과 타협자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린다.

[19절]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한다. 첫째로,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19:20은 하나님의 마지막 대 심판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결말은 지옥 불못이다.

둘째로, 그들의 신(神)은 그들의 배다. 이것은 그들이 육체적 욕심을 최고 가치로 알고 살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먹는 것이 최고 가치이며 그 외에도 그들은 물질욕, 정욕, 명예욕, 권세욕 등에 사로잡혀 그것들에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탐심

은 우상숭배이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욕심을 섬기는 자들이다.

셋째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영광이 결국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게 참된 영광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실상 그들의 수치이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날 그들에게는 큰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넷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이란 썩어질 것, 허무한 것 그리고 죄악된 것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2:16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고 증거하였다.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세상의 헛되고 죄악된 것만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절] [이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있음이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재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본문도 17절에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말한다. ‘시민권’이라는 원어(폴리티우마 πολιτευμα)는 ‘시민권’ 혹은 ‘나라’라는 뜻이다. 거짓 교사들과 달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자이다. 이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인가? 천국은 복된 세계이다(히 11:16; 계 21:1-4).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계 22:20).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구원은 하나이지만, 세 단계가 있다. 중생(重生)과 칭의(稱義)는 과거의 단계이고, 성화(聖化)는 현재의 단계이고, 영화(榮化)는 미래의 단계이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죄성과 연약성과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할 수 있는 역사로(원문, KJV, NASB, NIV)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신적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주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 가질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같이 영광스러울 것이며 약하지 않고 썩지 않는 강한 몸일 것이다(고전 15:42-44). 여기에 성도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있다. 부활과 천국과 영생은 성도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경건한 종들을 본받고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소원하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고 바르게 사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했다. 우리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복음 신앙과 완전 성화에 대한 정직한 열심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딤후 4:12; 딤후 2:7).

둘째로, 우리는 교회 안의 배교자들과 타협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배격해야 한다. 그들은 결국 육신적 쾌락과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늘날 그런 배교자들과 타협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한다.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확신하며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4장: 기쁨의 열매

1-3절, 세 가지 권면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장의 끝에 언급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곧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와 파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되었다. 천국은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특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열매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사랑스런 빌립보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그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였다. ‘서라’는 원어(스테케테 $\sigma\tau\acute{\eta}\kappa\epsilon\tau\epsilon$)는 ‘굳게 서라’는 뜻을 가진다(KJV, NASB, NIV).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은 주의 진리 곧 이신칭의(以信稱義)[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의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완전 성화를 향해 충실히 노력해야 함을 가리킨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이다. 성도들은 ‘주 안에’ 곧 주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 주님과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함에, 주님의 교훈을 순종함에, 주님을 소망함에, 주님께 대한 충성에, 주님의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움에 굳게 서야 한다. 모든 성도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권면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을 말했다. 고린도전서 16: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권하여라.”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골로새서 2:7, “그 안에[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보면, 그 두 사람은 서로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빌립보교회는 좋은 교회이었지만, 그 교회 안에도 서로 생각이 맞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2:2-3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훈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성경의 일치된 교훈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본문이 보이는 두 번째 권면이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

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멍에를 같이한 자’라는 원어(쉬쥐고스 σύζυγος)는 ‘멍에를 같이한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 이름(‘쉬쥐고’라는 사람 이름)일지도 모른다 (NIV 난외주). 그는 빌립보교회를 대표할 만한 감독 중 하나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는 복음 사역에 함께 수고한 자이었던 것 같다. 또 빌립보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힘썼던 여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또 클레멘트와 그 외의 그의 동역자들을 말한다. 그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확신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람의 구원은 그의 행위를 통해 확증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복음의 일꾼들을 도우라고 말한다. 이것이 본문이 보이는 세 번째 권면이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일꾼들을 도울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도울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위로자이시며 격려자이시다. 위로와 격려의 말은 사역자들에게 힘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11-13, “그러므로 피차 권면[위로, 격려]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둘째로,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다. 기도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줄 수 있는 매우 큰 도움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셋째로, 우리는 물질로 도울 수 있다. 복음의 일꾼들은 세상의 일을 포기하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자들이다. 교회의 전임(專任) 사역자들은 교회 일에 매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을 물질로 도와야

한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0-42).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주의 진리 곧 이신칭의(以信稱義)[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의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완전 성화를 향해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주 안에’ 곧 주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 주님과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함에, 주님의 교훈을 순종함에, 주님을 소망함에, 주님께 대한 충성에, 주님의 바른 진리를 변호하기 위한 선한 싸움에 굳게 서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각 사람의 개인적 견해를 버리고 신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대한 일치된 교리 사상과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주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버리고 오직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셋째로,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위로와 격려의 말로 도와야 한다. 또 그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도와야 한다. 또 그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물질로 도와야 한다.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의식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

4-7절, 주 안에서의 특권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복된 특권이다.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은택들을 가리킨다. 주께서는 우리의 근본적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들인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은 주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된 것과 같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롬 14:17), 지금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기쁨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일하셔서 맺게 하시는 복된 열매이다(갈 5:22).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원어(토 에피에이케스 τὸ ἐπιεικὲς)는 ‘온유함, 친절함, 너그러움 등’의 뜻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는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대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와 친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온유함과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까닭은 주께서 오시면 모든 일을 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보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 예수께서는 가까이

와 계신다. 주의 재림은 심히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그에게 맡기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는 자들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장차 오는 천국을 알고 천국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는 참 성도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 문제나 진학의 염려,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거나 구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청년들은 취직의 염려와 결혼과 출산의 염려, 장년들은 직장과 사업 등의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와 자녀에 대한 염려, 노년들은 자녀들의 평안, 자신의 건강, 노후의 경제적 대책, 외로움, 임종 준비 등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다. 인생은 염려가 많은 삶이며 이 세상은 염려가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실상, 우리의 염려거리들 중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생활의 활기를 빼앗아 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것이 믿음이며 순종이다. 염려하지 않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이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마 6:25). 그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로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의 의식주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느냐고 교훈하셨고, 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天父)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다(마 6:31-33).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라도 염려하거나 당황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큰 일도, 작은 일도, 정신적인 일도, 육체적, 물질적인 일도, 개인적인 일도, 가정적인 일도, 교회적인 일도, 국가적인 일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감사함이야말로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28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하였고, 또 로마서 8:32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 수 있고 또 그의 응답하심을 얻는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해력,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도가 금방 응답될 때도 있으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여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지하고 조급한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현실을 피하고 싶어하고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는 복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화이기도 하다. 실상, 참된 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의 경험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고 그의 사랑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그의 복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을 믿음과 평안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일차적인 응답은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다. 마음과 생각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각적이고 매우 귀한 응답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표현은 ‘모든 이해력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뜻이다.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이해력과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 응답과 그 응답으로서의 마음과 생각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특권이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모든 삶을 보장한다. 그것은 내세의 천국과 부활과 영생뿐 아니라, 현세의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의식주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와 함께하신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본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을 교훈한다.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불가능하다.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주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친절함과 관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은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가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중에 기도함으로써 평안을 누리야 한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성도들에게 주신 기쁨과 관용과 평안의 삶을 누리야 한다.

8-9절, 완전을 목표로 삼자

[8절] 종말로[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셀노스 σεμνός)[존경할 만한 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목표를 증거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적 완전이다. 우리에게 어떤 덕이나 칭찬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는 분명하다. 로마서 8:5-6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성령]을 좇는 자는 영[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들이므로 마땅히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몇 마디로 표현한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 우리는 범사에 참되고 진실한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위선과 거짓과 속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악이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다. 우리가 비록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고 자라난 가정적, 사회적 환경이 나빠서 유능한 인물이 못 된다 할지라도 참되고 진실한 인물은 되어야 한다. 성도의 성도다운 덕성은 그의 진실함에 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존경할 만하여야 한다.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원어(셀노스 σεμνός)는 디모데전서 3:8, 11에서 ‘단정하다’라고 번역된 말로서 ‘존경할 만하다, 품위 있다’는 뜻을 가진다. 성도들은 범사에 존경받을 만한 태도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이 됨을 가리킨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옳아야 한다. 옳은 삶, 의로운 삶, 그것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목표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의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정정당당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한다. 죄는 더러움이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부정당한 욕심과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물질 문제나 이성 문제나 직위와 권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흠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라는 말은 인격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이와 같이, 진실함, 존경받을 만함, 의로움, 순결함, 사랑할 만함, 칭찬할 만함 등은 인격의 완전함을 잘 드러낸다. 성도들은 도덕적인 완전을 생활 목표로 삼고 이런 덕목들에 생각과 마음을 두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한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고 받고 들은 것들이란 앞에서 언급한 도덕적 완전함이다. 그들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존경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순결하고 또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고 그 교훈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들었다.

또한 그들은 그 도덕적 완전함의 한 본을 바울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았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모범적 삶을 살았다. 비록 그가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모범이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비교적 흠이 없는 인격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행했다. 그래서 그는 3:17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4:3-4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간증했고, 또 고린도전서 4:16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였다. 사도 바울의 교훈은 자신이 직접 실천한 바이었다. 가장 효과적 교육은 선생이 직접 실천하며 본을 보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완전함을 생활 목표로 삼고 실천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항상 생각하고 완전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구원은 생활의 변화이다. 생활이 변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더러운 자가 변하여 깨끗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이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그러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완전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실천 강령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7, 26).

사도 바울은 또 “그리하면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의 결과를 증거한다. 우리의 온전한 삶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이요 가장 든든한 보장이며 보증이다.

그것은 각양의 기도 응답을 포함한다. 과연 요한일서 3:21-22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였다.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복된 삶인 것이다.

온전한 삶의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뜻과 같다.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에이레네 εἰρήνη, 히브리어 shalom שָׁלוֹם)은 포괄적 개념이라고 본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뿐

만 아니라, 몸의 건강, 물질적 여유,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불안, 병, 가난, 전쟁과 반대되는 말이다. 그것은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과 같다. 이 평안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에게 오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48:18은,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라고 말했고 또 이사야 48:22과 57:21은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했다(사 48:22).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도덕적 완전함을 우리의 생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도덕적 완전함은 진실함, 존경받을 만함, 올바름, 순결함, 사랑할 만함, 칭찬할 만함 등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성경에 교훈된 성도의 생활의 규칙이며 우리의 성화의 목표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적 완전함이다. 우리는 흠 없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이론을 가진 실천의 종교이다.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체험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말씀대로 도덕적 완전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이다. 비록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평안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강 같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사 48:18).

10-14절, 자족하기를 배움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초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했으나(15-16절) 얼마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도움을 보내왔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물질적 도움은 그들이 그의 복음 사역과 그 고난에 동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또 그들의 선교 헌금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이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며(고후 8:8) 그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라고 말했다(고후 9:13).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성전 봉사의 일에 전담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게 하셨다. 민수기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또 레위인들의 십일조는 제사장들에게 드려 생활비로 쓰게 하셨다(민 18:28).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마 10:42), 또 심지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의 종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선행이 영생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셨다(마 25:31-46).

[11-12절]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족하는 생활 신조를 간증한다. 그것은 아마 그들의 물질적 후원에 대한 그의 기쁨이 그가 단지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이었을 것이다.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다.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물질로 돕는 것이 선한 일이지만, 전도자들은 물질에 속박을 받지 않고 물질을 초월하여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0:9-10).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만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자신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증거하였다(9:12).

자족하는 생활은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생활이다. 염려는 탐심에서 나온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자족하며 살게 한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셨다(마 6:31).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교훈했다(딤후 6:7-8).

자족하는 생활은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족하는 삶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말한다. 우리는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 줄도 알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넷길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의 영광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빈부 귀천의 삶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하나

님께서서는 전도자들과 성도들의 의식주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으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보장하셨다(마 6:31-33).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출 16:4, 35). 잠언 30:7-9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행복의 필수적 조건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고 사랑과 평안이다. 잠언 15:17,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고기]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11).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탐욕도 염려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13-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재[그리스도]³⁾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환경여건에서도 낙심치 않고 자족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는 우리의 위로와 힘과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3) Byz syr^p Origen^(gr) lat 등이 그러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다(창 18:14).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기 먹기를 원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니이까 라고 반문하는 그에게 “여호와와 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말씀하셨다(민 11:23).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역대하 16:9는 “여호와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하였다.

이사야 2:22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고, 에스겔 7:19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더러운 것]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죽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사 40:30-31). 주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물질로 돕는 일은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다.

둘째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과 염려를 다 버리고 섭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15-23절, 헌금의 의미와 약속

[15-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카이 하팍스 카이 디스 καὶ ἄπαξ καὶ δις)[‘몇 번,’ 혹은 ‘여러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시초에’라는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때를 가리킨다. 사도 바울은 주후 47년경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고(행 13:1-3) 주후 50년경 2차 전도여행시 마케도냐 지방으로 건너가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다(행 16:12).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하였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을 떠나 다른 곳들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 후원금으로 그를 몇 번 도왔음을 가리킨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했을 때(행 17장), 그들은 벌써 그를 돕기 시작했었다. 그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그 교회뿐이었다. 헌금은 전도와 구제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다. 물론 전도는 국내외의 전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교회의 목회활동들도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는 자체의 행사와 교제를 위해서는 헌금을 절약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본문은 헌금이 성도의 선한 열매임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행실을 원하신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헌금은 좋은 열매이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는 말은 헌금이 헌금하는 자 자신에게 유익이 됨을 보인다. 헌금은 헌금하는 자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한다. 우리는 헌금하는 자신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헌금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 구약시대 헌금의 표준은 소득의 온전한

십일조이었지만(레 27:30-33; 말 3:8), 신약시대 헌금의 표준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십일조 이상을 의미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8:7,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헌금]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구약의 십일조 규례는 의식법으로 신약 아래서는 성취되었고 폐지되었으나 축소된 방식으로가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소득의 십일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본문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증거한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도 약 17번 나온다(창 8:21; 출 29:18; 레 1:9, 13, 17; 2:2, 9; 3:5, 16 등).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서 제단에 태워지는 제물의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유희(有和)의 향기, 즉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향기라는 뜻이다.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표시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들만 즐거이 헌금할 수 있다(고후 8:5). 또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므로, 그것은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은 찬송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이다. 물론 이것들 중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헌금도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고전 16:2).

[19-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헌금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

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시편 24: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학개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대상 29:11, 14).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부요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시편 37:25-26,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잠언 11:24-25,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의식주의 필요]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 6:33).

엘리아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좋은 예이다. 기근이 왔고 요단 앞 그릿 시내가 마르자 선지자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 떡 한 조각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떡이 없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엘리야의 요청대로 그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와 그의 아들과 엘리야가 여러 날 먹게 하였고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왕상 17:8-16). 오늘 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실히 믿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실 것이다.

[21-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⁴⁾

‘성도’와 ‘형제’라는 명칭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명칭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고(히 10:10)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엡 2:19; 마 12:50).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누리는 복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기를 원하며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문안도 그들에게 알린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놀라운 사실을 보인다.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가 전한 복음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집안에까지 들어갔다. 로마 황제의 가족들 중에 믿는 이가 생겼다! 이것은 전도의 놀라운 진전이며 결실이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고 확장되고 있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좋은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행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헌금, 특히 전도와 구제를 위한 헌금은 성도의 좋은 열매이다.

둘째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의 삶 전체가 그렇지만(롬 12:1),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셋째로,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헌금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 복을 받을 선한 행위이다.

4) Byz p⁴⁶ N A it^d vg syr^p arm 등에 있음.

골로새서

서론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1:1, 23; 4:18). 2-3세기의 교부들인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등은 본 서신을 사도 바울의 글로 인용하였다.

본 서신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동남쪽 약 15km 지점에 있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 요소와 금욕주의적 요소와 철학적 요소를 가진 이단이 침투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 본 서신을 썼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60년경일 것이다. 두기고(엡 6:21; 골 4:7),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아킵보 등에 대한 언급(골 4:10, 12, 17; 몬 23-24)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음을 보인다. 기록된 순서는 아마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순일 것이다.

골로새서의 **특징적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하심이다.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그의 속죄사역의 완전 충족하심을 증거한다.

1장: 그리스도의 뛰어난심

1-8절, 문안과 감사

[1-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⁵⁾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⁵⁾으로부터 은혜와 평강⁵⁾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는 그의 직분에 대한 소명감이 분명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그 직분에 그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대한 소명감과 사명감이 분명해야 겸손하게 그리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

‘성도’는 매우 존귀한 이름이다.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단번에 기록해졌다. 그것이 구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존귀한 이름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천국의 백성이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다. 실상,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혈육 관계보다 더 의미가 있다.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하다. 육신의 형제는 100년 간의 관계이지만, 믿음의 형제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 ‘은혜와 평안’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은혜는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의 복이다. 평안은 그 구원에 뒤따르며 동반되는 복이며, 그것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몸의 건강,

5) Byz **κ** A C vg^{cl} (cop^{bo}) arm^{mss} 등이 그러함.

물질적 안정, 환경적 평안도 포함한다. 은혜와 평안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기원해야 하며, 또 그 복을 누리야 한다.

[3-5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귀한 사랑의 행위이다. 우리도 자신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특히 목사와 직분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다. 그것들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들이다. 성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과 미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생명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큰 보화이다. 그런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만 가질 수 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믿음이 있었다.

둘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무엇이 참 교회의 모습인가? 물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바른 교리 사상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배교의 시대에 배교에 따라가거나 배교와

타협지 않고 잘못된 연합운동에 참여치 않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교회가 참 교회이다. 그러나 참 교회는 또한 바른 말씀을 실천하는 것, 특히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다. 모든 교인들이 겸손히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일치 단합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다.

셋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가진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성도들의 소망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것들, 즉 천국과 부활과 영생 등 영광스러운 내용이다(롬 8:18). ‘복음 진리의 말씀들 들은 것’이라는 원어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들은 것’이라는 뜻으로 소망의 내용이 복음 진리 안에 제시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과 영생은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내용을 포함한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진리의 말씀임을 보인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안에만 있다. 그 내용이 구원의 소식이고, 영광의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리킨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가리킨다.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들이다. ‘깨닫다’는 원어(에피기노스쿠 ἐπιγινώσκω)는 ‘참된 지식에 도달하다, 바르게 인식하다’는 뜻이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을 때에 온다. 참 지식은 믿음에 필수적 요소이다. 참된 깨달음과 지식이 없이

는 참 믿음이 건립될 수 없다. 믿음은 참되고 견고한 지식 위에 세워지지, 바른 지식 없는 막연한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7-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에바브라에게서도]6)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 일행과 ‘함께 종된’ 자, 곧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에게서도 복음 진리를 배웠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복음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데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의 일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다.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였다. 사랑은 참된 복음 신앙의 증거이며 말씀 순종의 표이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며 받아 누려야 한다. 그것은 큰복이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 물질적 필요의 공급, 환경적 평안을 누리다. 우리는 늘 이 복을 사모하며 누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간직된 소망 곧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 믿음은 구원의 생명이며 참 사랑은 참 믿음의 열매이며 증표이고 참 소망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이며 힘과 기쁨이다.

6) Byz vg^{mss} cop^{sa-mss}에 있음.

9-14절, 사도 바울의 기도

[9절]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첫째로, 그는 그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였다. ‘아는 것’이라는 원어(에피그노시스 *ἐπίγνωσις*)는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리킨다(Thayer). 무슨 일이든지, 먼저 그 일에 대해 알아야 잘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죄인들을 위해 구주를 보내셨고 구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의 모든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이다. 지식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

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이며, 우리가 계속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범사에 또한 온전히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의 명령은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악은 피조물에게서 나왔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요지는 첫째,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과, 둘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내용은 처음 내용에 대한 보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좀 필요한 일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훈련 과정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또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18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교훈하였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셋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

시다. 그는 역사상 종종 그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 곧 그의 전능(全能)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기를 구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것은 육신적인 힘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힘을 가리킨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다.

힘의 유익은 참음에서 나타난다. 힘이 있는 자만이 잘 참을 수 있다. 그런 힘이 없는 자는 조금 참다가 낙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진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넷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를 기도하였다. 그는 그들의 구원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일로 표현하였다. 어둠은 무지와 부도덕과 죽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현재의 세상과 장래의 지옥의 모습이다. 그러나 빛은 지식과 의와 생명을 가리킨다. 그것은 현재 참된 교회와 장래의 영광스런 천국의 모습이다. 성도의 기업은 천국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25:34에 보면, 주께서는 의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 기업을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하였다(벧전 1:4). 우리는 구원 얻는 많은 자들 중에 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그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기업을 얻게 하셨다.

[13-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救贖),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가리킨다. 죄인들은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거기서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혹은 ‘그의 사랑의 표시로 주신 아들’이라는 뜻일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가까움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마 4:17),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씀하셨다(눅 17:20-21). 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9는 신약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다.

‘건져내사’라는 말(에루사토 ἐρρύσατο)과 ‘옮기셨으니’라는 말(메테스테센 μετέστησεν)은 단순과거시제로서 그 사실이 단번에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임을 나타낸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중생(重生), 곧 거듭남은 반복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은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요 5:24).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이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救贖)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救贖)이라는 말은 짓값을 지불하고 죄의 속박 즉 죄의 가책과 공포와 정죄와 형벌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이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짓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

키쳤다. 구속(救贖) 혹은 속죄는 죄사함을 가리킨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사함을 가리킨다. 복음은 죄사함의 방법을 제시하는 소식이다. ‘얻었다’는 말(에코멘εν ἔχομεν)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죄사함의 구원을 현재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인생의 정로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선한 행위와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다 선한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힘쓰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어떠한 고난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신앙생활에는 지식과 행위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고난 중에 낙심하며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고난에도 참고 견딜 수 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 즉 지식과 의와 기쁨의 세계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허무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장차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큰 구원을 얻었다.

15-18절,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속(救贖)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의 탁월하심을 열 가지로 증거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요 4:24)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지만(딤후 6: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독생하신 아들](전통본문)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보서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형상이셨으므로].” 히브리서 1:3, “이[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형상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다. 낱으심과 창조는 비슷한 점이 있다. 창조도 낱으심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영혼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낱으심으로 표현된다(요 1:13; 약 1:18).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낱으심과 창조는 동일하지 않다. 창조는 질적 차이를 만든다. 창조주는 무한하시지만, 피조물은 유한하다. 그러나 낱으심은 동질적 존재를 낳는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두 분 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창조되신 것이 아니고 나신 것이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요한복음 1:1에서 ‘하나님’으로, 이사야 9:6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요한일서 5:20에서 ‘참 하나님’으로, 디도서 2:13에서 ‘크신 하나님’으로 불리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한자(有限者)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 무한자(無限者)에게서 나신 무한자, 영원자에게서 나신 영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그 아들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때는 사람의 시간 관념으로 상상할 수 없다. 그 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곧 영원 세계에서의 일이다.

[16절] 만물이 그에게[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엔 아우토 εν αυτω) 창조되었다는 원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디 아우투 δι αυτου) 창조되었다는 원어도 이와 비슷하게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2,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에 의해 혹은 그를 통해 창조된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들 곧 하늘과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있는 것들 곧 땅과 바다들과 호수들과 강들과 식물들, 새들, 물고기들, 동물들,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보이는 물질세계 뿐 아니라, 또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즉 천사들의 세계도 포함한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가리켰다고 보인다.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들의 위정자들 배후에 천사들이 있음을 증거하였다(단 10:13, 20, 21).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들의 창조의 목적이시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에이스 아우톤 εις αυτον) 창조되었다. ‘그

를 위하여'라는 말은 만물 창조의 목적을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증거하셨다. 이사야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미가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영원 전에]니라.”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요한복음 8: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함께 서 있다’는 표현은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뜻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다. 느헤미야 9:6,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신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다. 히브리서 1:3,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일곱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머리와 몸은 생명적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적 관계도 나타낸다. 그는 머리, 곧 우두머리, 주님, 통치자이시다.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대항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절대순종하며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여덟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이시다. ‘근본’이라는 원어(아르케 ἀρχή)는 ‘근원, 시작’이라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3:14은 그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했다. ‘근본, 근원, 시작’이라는 헬라어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의 중요한 주제이었다. 그들은 존재의 세계 즉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다. 성경은 우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아홉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다. 이것은 그가 최초로 영광스런 부활을 하셨음을 뜻한다.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고전 15:20). 아직 아무도 그와 같이 영광스런 부활을 경험치 못했다. 아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나 나사로의 부활도 죽은 몸의 회생(回生)에 불과하였지 그런 영광스런 부활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으셨다. 장차 그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빌 3:21).

열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 으뜸이 되다’는 원어(프로τύω πρωτεύω)는 ‘뛰어남, 탁월함을 가지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세상에서 뛰어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빌립보서 2:9-11,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먼저 계셨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다. 그는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시며 우주의 근원이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 가운데서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의 영광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비한 인격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며(요 1:1) 참 하나님이며(요일 5:20) 크신 하나님이다(딤후 2:13). 우리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특히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를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둘째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오직 그를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만물은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사야 43:7, 21,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후 5:15).

셋째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계 19:16).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모든 교훈에 절대복종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계 2:10).

19-23절,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신성(神性)의 충만’을 가리킨다. 골로새서 2:9, “그 안에는 신성(神性)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속성들 중의 한두 가지를 가지셨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 정도가 아니셨고,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자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요 1:1; 요일 5:20).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神性)을 가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이었다.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 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것이다.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레위기 17:11의 말씀대로, 사람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흘림을 통해 죄가 속해진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22는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흘리실 피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표현하셨다(마 26:28).

화목의 대상은 만물이며, 그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창 3:17),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고(롬 8:20-22) 또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비인격적 생물의

세계나 물질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케 된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화목한다’는 원어(아포카탈락소 ἀποκαταλλάσσω)가 ‘원상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는 것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죄의 결과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쳤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의 결과는 온 우주에 미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5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다.

물론, ‘만물’이라는 말은 타락한 천사들과 회개치 않은 악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된 산상 설교에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좁은 길로 가는 자들보다 많고 그 결말은 멸망이라고 가르치셨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염소들, 곧 주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 7:13-14; 25:41). 영생의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21-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곧 화목 사역의 일차적 대상은 사람들이다. 그 화목 사역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악한 행실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좋아하지 않았고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도 않았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사람과 하나님을 원수 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케 된 것이다.

화목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예정과

선택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엡 1:4-5).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요 19:30).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가 이루신 속죄사역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법적 의(義)이다. 구원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장차 다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이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셨다. 물론, 법적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헛된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는 이제 죄의 도구가 아니고 의의 도구로,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롬 6:13).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는 믿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목 사역의 효력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견고히 서고 복음 안에서 주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은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생긴다.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신약성경은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한다.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도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

님의 방법이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딤후 3:15).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사람의 범치는 사람을 하나님과 불화(不和)하게 했다. 사람이 범치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은 화목의 메시지이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둘째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다. 믿음은 곧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생의 길이다. 그러나 불신앙은 곧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곧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을 때, 세상의 헛된 것들 곧 돈과 육신적 쾌락과 세상 권세와 명예 등을 위해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헛되고 죄악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였고 또 현재의 모든 죄악된 성질과 습관을 고백하였고 미워하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또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24-29절,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슬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셨다(마 5:11-12). 교회를 위한 고난은 곧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다.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했고 거기에 무엇을 첨가할 것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의 고난에 부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그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그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도 당해야 할 것이다(행 14:22; 계 6:11).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것은 그가 당시에 벌써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과연 그는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자기가 당한 많은 고난을 자세히 간증했다(고전 4:11-13; 고후 1:8-9; 6:4-5; 11:23-27).

[25-27절]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오이코노미아 οἰκονομία)[직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이룬다는 뜻이라고 본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구약시대에는 감춰있던 바이었으나 이제 밝히 증거되고 있다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나, 지금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9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비밀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임을 나타낸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마 24:30), 죽었던 성도들은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고전 15:42-44; 빌 3:20-21) 영광스런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이다(계 21, 22장).

[28-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드리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役事)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본문은 목회의 핵심과 목회의 목적을 보인다. 목회의 핵심은 설교이며,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한다. 또 목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세운다’는 원어(파리스테미 παρίστημι)는 ‘드린다’는 뜻이다. 목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완전한 자를 만든다’는 말은 칭의(稱義, 의롭다 하심)와 성화(聖化, 거룩하여짐)를 다 포함한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는 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된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10, 14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온전케 되었다(완료시제).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聖化)의 진리이다. 성화는, 칭의와 함께, 설교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성경과 교회의 일차적 목적은 칭의를 위한 것이지만, 이차적 목적은 성화를 위한 것이다. 칭의는 성도에게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주며, 성화도 그것 못지 않게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더해준다. 성도는 거룩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를 것이다(롬 6:22).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릴 것이다(마 3:8-10).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7, 26).

29절의 ‘역사(役事)를 따라’라는 원어(카타 텐 에네르게이안 κατὰ τὴν ἐνέργειαν)는 ‘힘을 따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코피오 아고니조메노스 κοπιῶ ἀγωνιζόμενος)은 ‘애쓰며 수고한다’는 뜻이다. 본절은 목회의 힘과 수고에 대해 말한다. 목회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목회자는 그 힘으로 설교하며 목회한다. 그러나 목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편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 다른 일들과 같이, 목회도 충실한 노력과 수고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달란트 비유(마 25:14-30)나 므나 비유(눅 19:11-27)는 복음의 일꾼들이 게으르지 말고 충실하게 일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전통사본)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전념]하라”(딤펴 4:12-13).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해졌고 완전케 되었다. 이것이 칭의(稱義)의 진리이며 복음의 중심 내용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요 자유의 근거요 담대함의 원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실제로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들은 지식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진리이다.

둘째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충실하게 애쓰며 수고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주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낙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애쓰며 수고해야 한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 예수께서 항상 공급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때가 되면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성도들은 그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되며 영광스러운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런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

2장: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하심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바쳐진 자로서 자기의 얼굴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든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든지 충성되이 일하고자 애썼다. 교회 직분자들, 특히 말씀의 봉사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해야 할 것이다.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힘쓴 목표는 우선 성도들이 마음에 위로를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었다. 진리의 확신과 사랑의 연합은 참 교회의 모습이다. 주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요 13:35) 그 사랑의 연합은 참 지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만한 이해’라는 원어(테스 플로포리아스 테스 쉬네세오스 τῆς πληροφορίας τῆς συνέσεως)는 직역하면 ‘이해의 충만한 확신’ 혹은 ‘충만한 확신을 가진 이해’라는 뜻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충만한 확신을 가진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충만한 이해와 확신을 가진다는 뜻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7) Byz ⁸* 048 A C (vg) syr^p (cop^{sa-mss bo}) 등이 그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은 신비 중의 신비이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도 신비한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세상에서 처음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이다. 그의 신비한 부활체는 장차 모든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체와 같다고 보인다. 또 그의 몸된 교회도 신비한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은 비밀스런 사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사실도 신비한 일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시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족하셨다. 누가복음 2: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사야 11:2는 메시아에게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진행해 왔고 온 우주와 세계는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당시에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려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에 더하여 사람의 지혜와 이성을 의지하려는 자유주의자나 신비 체험을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는 속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족한

구주이시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히 13:8)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확신함으로써 우리를 넘어서게 하려는 자들의 거짓말들에 속지 말아야 한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규모’라는 원어(탁시스 τάξις)는 ‘질서’(KJV, NIV), ‘규율’(NASB)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또 ‘믿음의 굳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확신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잘 훈련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며 기뻐하였다.

[6-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본절의 주동사는 ‘행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본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원어(파렐라베테 톤 크리스톤 예수 톤 퀴리온 παρελάβετε τὸν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τὸν κύριον)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라는 뜻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주와 그리스도 곧 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였다는 뜻이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과 같다(마 16:16).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9-10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요한복음 1:12는 “영접하는[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 여기에 교회의 기초가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과 믿음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세상적 교제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모임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권면했다. 첫째로,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환난이 닥칠 때 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려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을 교훈하셨다(마 13:21).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즉 성경말씀을 통해 될 수 있다. 다윗은 시편 19:7-8에서 “여호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하였다. 누가는 누가복음 1:1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페리 톤 페플레로포레메는 περί τῶν πεπληροφορημένων)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확정된(fully established)(Green), 지극히 확신하는(most surely believed)(KJV) 사실에 대하여”라는 뜻이다. 또 누가는 그가 복음서를 쓴 목적을 “이는 [데오빌로]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certainty)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고 말하였다(눅 1:4).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31)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연구함으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였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 됨과 천국 백성의 특권을 은혜로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구원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1:3-5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인하여 즉 그들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증거하였고, 1:12에서는 그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에베소서 1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 찬송의 이유,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여 그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구원, 그의 크신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넘치게 그에게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를 위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다

면,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히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한다. 이것이 본문의 강조점이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 신앙고백이나 예배보다 실제적 삶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귀하고 중요하지만, 실상 그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더 중요하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예배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 즉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데서 시작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그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그의 신성(神性), 그의 속죄사역과 그의 부활, 또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온 세상의 회복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영광 등을 포함한다.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진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더욱 풍성하게 알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또 잘 훈련된 인격과 삶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는 온갖 오류를 조심하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구주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구주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것은 순종의 삶이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삶이다.

8-15절, 세례의 깊은 의미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의 교훈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구주이시며 그의 구속(救贖) 사역은 완전하므로 우리가 오직 그 분만 믿고 따르고 오직 그의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들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었다. ‘초등학문’이라는 원어(스토이케이아 στοιχειά)는 ‘초보적 원리들’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철학들이나 종교들의 초보적 원리들을 가리킨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이 세상의 철학들이 결국 헛된 속임수임을 암시한다. 사람의 철학들이 참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결국 헛된 속임수이다. ‘노략할까’라는 말은 이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보다 오히려 빼앗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오히려 해를 입힌다는 것을 뜻한다. 이 세상에는 철학들, 사상들, 종교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결국 다 헛된 속임수들이요 실상 우리를 노략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항상 굳게 서야 한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세상의 철학들과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神性)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일부분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성의 모든 충만, 곧 충만하신 신성이 거하신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은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진리와 같은 진리도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진리는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이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페플레로메노이 *πεπληρωμένοι*)[완전케 되었으니](KJV, NASB)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완전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뜻에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고’(히 10:10)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히 10:14)고 말하였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정사(政事)와 권세의 머리시이다. 그는 영의 세계에서도 머리시이다.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 정치가들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육신의 죄의 몸(전통사본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악된 옛 자아 곧 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린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것이 사죄(赦罪)와 칭의(稱義)라는 법적 구원이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성결을 상징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결을 얻은 것이다. 본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다.

[12-13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

8) Byz syr 등에 있음.

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 곧 참된 성결은 세례 의식으로 상징되었다. 세례는 죄씻음의 뜻을 가지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확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완전은 결국 사죄(赦罪)와 칭의(稱義)와 중생(重生)을 가리킨다. 사죄 곧 죄사함을 받은 무죄(無罪) 상태는 의(義)의 상태이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인 것이다.

[14-15절] 우리를 거스리고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그 안에서, 그것 안에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율법 조문들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박으셨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죄(赦罪)와 칭의(稱義)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의(義)를 입혀 주셨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지된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6:14), 또는 ‘율법에서 벗어났다’(7:6)고 말했고, 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8: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폐하시는 법적 조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해 죄인들에게 권세를 부렸던 악령들의 세력들도 폐하셨다. ‘정사와 권세’는 악령들을 가리키며, ‘벗어버렸다’는 말은 악령들의 세력을 폐하셨다는 뜻이다. ‘바히 드러내셨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죄(赦罪)의 사실을 악령들 앞에 드러내셨다는 뜻이다. ‘그 안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오히려 죄와 악령들을 이기는 사건이 되었다는 뜻이다. 주께서는 죽음으로 승리하셨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철학들을 주의해야 한다. 사람이 고안해 낸 종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은 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속임수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철학들과 종교들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神性)의 충만이 있으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神性)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완전하였다.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만세 전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충족하셨다. 우리는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을 통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율법의 속박도 도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완전케 되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회복을 얻었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

16-23절, 의식법에 얽매이지 말라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에 대한 법이나 피에 대한 법 등을 가리킨다(레 11장; 17장). 월삭은 초하룻날이며 ‘안식일’이라는 원어(살바톤 σαββάτων, 복수명사)[안식일들](KJV)는 주간의 하루인 ‘제7일 안식일’을 가리킬 수 있으나(눅 4:16; 행 13:14; 16:13 등), 또한 연중 절기들의 안식일들(무교절에 2번, 맥추절 1번, 나팔절 1번, 속죄일 1번, 초막절에 2번 등 연중에 모두 7번)을 가리킬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은 의식법 문제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연약한 자들이 고기 먹는 것을 거리끼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음식 자체가 깨끗지 않은 것은 없으며 단지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깨끗지 않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했다. 또 히브리서는 “이런 것[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며(9:10)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말하였다(10:9).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의식법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었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이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물론, 인류의 구원과 이 세상의 회복은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의 결과로 확실히 성취될 것이다. 의식법의 내용이 그러하므로 신약 성도들은 이 법들을 지킬 의무 아래 있지 않다. 구약의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3). 우리는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타페이노프로쉬네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집짓 꾸민 겸손]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그 보지 못한 것들 안으로 들어가)(전통본문)9)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해 말한다. 거짓 교사들은 의식법의 강조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말은 문맥상 자기 몸의 학대 곧 금욕(禁慾)과 고행(苦行)을 가리킨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보지도 못한 것들을 헛되이 자랑하고 과장하며 금욕과 고행과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 그러나 이런 교훈을 따르는 것은 ‘상을 빼앗기는 것’ 곧 구원의 상실과 신앙생활의 실패를 뜻한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배척해야 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일이다.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온 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란다. 에베소서 4:15-16,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화, 거룩하고 선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요 15:5).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는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영적 성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성화는

9) Byz C vg arm eth Origen^{gr-ms} lat 1/3 등이 그러함.

단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6-7에서 “나는 심었고 아몰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하였다.

[20-22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儀文)[(종교적) 규례들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이나 의식법들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종교적 규례들을 강조해 어떤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 ‘의문(儀文)에 순종한다’는 말(도그마티제스테 δογματίζεσθε)은 ‘[종교적] 규례들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약교회에서 구약의 의식법이나 종교적 규례들을 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교훈은 다 없어질 것이며, 그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自意的, self-made) 숭배와 겸손짐짓 꾸민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사르크스 σάρξ)[몸의 죄성]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금욕주의는 참된 경건과 성결의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자의적 숭배’는 자기가 만들어 자기에게 부과한 경배 행위를 가리킨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함’은 금욕적 행위들을 가리킨다. 그런 것들은 그럴 듯한 모양과 말뿐이지, 몸의 죄성 좇는 것을 금하는 데, 즉 참된 성화에 아무런 유익과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성화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에 늘 거함으로 그리고 성령

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구약의 성막 제도, 제사 제도, 정결 부정결 음식법, 절기들 규례 등 소위 의식법들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비록 그것들에 담긴 도덕적 교훈은 신약시대에도 유효하지만, 의식법 자체는 폐지되었다. 예수께서는 도덕적 의 뿐만 아니라, 의식법들의 예표들을 성취하셨다.

둘째로, 우리는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금욕주의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만지고 안 만지는 등 구약의 의식법들과 인간적 규례들을 강조한다. 이런 강조는 이방 종교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천주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아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랄 것을 경계했다(딤후 4:1-5). 그러나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성화를 이루는 길도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기에 무능하다. 금욕주의는 중세 수도원 같은 곳에서 실천되었으나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써나 금욕주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좇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5:1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13-14, “너희가 육신[몸의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內住)하신다. 우리는 무지하고 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시시때때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끝까지 순종케 하신다.

3장: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

1-11절, 땅엿것을 죽이고 위엿것을 찾으라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엿것을 생각하고 땅엿것을 생각지 말라.

본문은 위엿것을 찾고 땅엿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주된 관심과 삶의 목표를 위엿것에 두고 땅엿것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위엿것’이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리킨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요 6:29). 또 성경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살전 4:3). 그러므로 우리가 위엿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데 두고 천국에 두고 믿음의 일, 전도하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이다.

땅엿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 육신의 일, 의식주에 관한 일, 썩는 양식의 일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이고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더럽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선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에게 정당한 일이지만, 성도들은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로 삼아서 안 된다.

우리가 땅엿것을 생각지 말고 위엿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산 자들이다.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自我)는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땅의 것들이 아니고 하늘의 것들이어야 한다.

[3-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엿것을 찾고 위엿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어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의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어 있고 장차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20-21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했다.

[5-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不淨)과 사욕(邪慾)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전통본문)¹⁰⁾ 임하느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 몸의 죄성을 가리킨다. 그것은 다음에 열거된 음란, 부정(不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이다. 단순히 몸의 학대인 금욕(禁慾)과 고행(苦行)은 성화를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다(골 2:18-23).

10) Byz ⋈ A C it^d vg syr^p cop^{bo} arm 등에 있음.

‘음란’은 정당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가리킨다. 성(性)은 정상적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부정’(不淨)은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러운 것을 가리킨다. ‘사욕’(邪慾)과 ‘악한 정욕’도 정당치 않은 감정과 욕망을 가리킨다. 이 네 가지의 말들은 주로 성적인 죄악에 관계된다. 이 세상은 언제나 음란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들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음란한 풍조들을 조심해야 한다. 성도들은 남녀관계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성도들의 옷차림도 단정해야 한다 (딤후 2:9). 미니 스커트나 앞이 파진 옷이나 소매 없는 옷이나 옆이 갈라진 치마나 딱 들러붙는 바지 등은 피해야 한다.

‘탐심’은 주로 물질에 관한 말이다. 탐심은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다. 탐심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최고 가치로 두는 우상숭배이다. 우리는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환경여건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고 말했다. ‘이것들’은 음란, 부정(不淨),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가리킨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성도는 이런 죄악들을 회개했지만,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음란과 탐심의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7-8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忿)과 [노(怒)와(원문)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로 과거에 음란과 탐심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옛 죄악성들을 다 죽이고 그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본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들을 또 열거한다. 분과 노와 악의와 훼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 등이다. ‘악의’(惡意)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리키고 ‘훼방’은

남을 말로 비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끄러운 말’이라는 원어(아이스 크롤로기아 αἰσχρολογία)는 더러운 욕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9-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는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입었음이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위에 열거한 악들에 더하여, ‘거짓말’은 매우 나쁜 악이다. 거짓말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에 사용한 것이다. 마귀의 근본적 특징은 거짓과 속임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징은 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이 버릇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일에서부터 진실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진실한 자를 사랑하신다.

‘옛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던 옛 자아를 가리킨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새 자아를 가리킨다. 그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다. 구원의 두 요소는 지식과 도덕성이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때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이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거짓을 버려야 한다.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野人)[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Scythian)[거칠고 무례한 자]이나 종이냐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는 ‘새 사람의 세계’를 가리킨다. 거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贖罪)와 의(義)가 충족하며 그 외에 무엇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의 충족한 원인

과 조건이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는 뜻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엿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땅엿것들은 이 세상의 헛된 일들과 죄악된 일들을 가리키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일들을 행하고 이 세상의 죄악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즐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시적이며 허무하고 많은 경우 죄악으로 더럽혀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실상,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이다(전 1:2).

둘째로, 우리는 위엿것을 찾아야 한다. 위엿것은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일에 관한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께 두며 천국에 두고 하나님의 일에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두어야 한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일이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일이며 성화(聖化)를 이루는 일이며 전도하는 일이며 교회의 일들이며 참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선한 열매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런 일들을 힘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땅에 있는 지체, 곧 육신의 죄성을 죽여야 한다. 우리는 음란과 탐심과 분노와 악의와 훼방과 더러운 욕설과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온유함을 품어야 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덕스러운 말을 하며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代贖)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되었으므로 성도답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것으로 옷을 입어야만 한다.

12절,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뜻이다. 성도의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에 근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단번에 입혀주신 후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신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표현한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말한다. 선택의 가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에 선택의 가치가 있다.

선택의 목적과 증거는 거룩함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죄들을 씻어 깨끗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엡 1:4). 성도(聖徒)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여진 자들이다(고전 1:2). 그러므로 사람이 죄와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것은 버려두신 증거이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은 선택받은 증거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을 열거한다. 먼저 ‘긍휼과 자비’를 말한다. ‘긍휼’이라는 원어(스플랑크나 오이크티르무 σπλάγχνα οίκτιρμού)는 ‘긍휼의 심장’이라는 말이다.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단어이다. 긍휼과 자비는 멸시, 학대,

악행과 반대되는 말이다. 그것은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의 심정을 가지셨다.

죄의 결과들을 보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쳐야 할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 고생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많다. 거기에는 온갖 질병들과 전염병들과, 가뭄, 홍수, 태풍, 폭설, 지진, 화산, 해일 등 자연 재해들이 있다. 또 인간 사회에는 미움과 싸움, 위협과 납치, 폭행과 살인이 있고 배신과 이혼이 있고 각종 사고들이 있고 비참한 전쟁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사람은 늙고 쇠약해지고 마침내 죽고 만다. 이 불행이 다 짓값이다. 긍휼과 자비는 이런 불행들을 안고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불행을 안고 사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들을 향해서도 긍휼과 자비의 심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본문은 또 ‘겸손과 온유’를 말한다. 겸손과 온유는 긍휼과 자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덕이다. 겸손과 온유는 교만, 높은 마음, 자랑, 멸시, 거친 말에 반대되는 말이다. 교만은 마귀가 정죄 받은 죄이며(딤후 3:6) 사람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악이다(잠 16:18).

교만은 사람이 흠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어리석은 죄악이다. 사람은 자신을 바로 알 때 겸손해질 수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은 나’라고 표현하였다(창 18:27). 더욱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죄와 부족이 많은 자이다. 완전히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과 거짓이 있어서 때때로 그것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 죄와 부족이 많은 인생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

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 같은 너야곱아’라고 부르셨다(사 41:14).

겸손과 온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다. 예수께서는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마 11:29). 하나님의 아들이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눅 2:21) 인간 부모에게 복종하셨고(눅 2:51)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눅 2:41-42). 그는 30세쯤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마 3:13-17). 그는 사람들과 함께 33년 동안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극한 겸손의 사건이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한다. 교만은 마귀의 죄악이요, 겸손은 주 예수님의 덕이다.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하였다(민 12:3).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곁에 두고 늘 읽음으로써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교훈되어 있다(신 17:18-20). 오늘날도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겸손과 온유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마 20:26-27).

본문은 또 ‘오래 참음’을 말한다. 오래 참음은 조급함과 반대된다. 조급한 자는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는 자제심이 적고 쉽게 성질을 내고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잘한다. 그러나 오래 참는 사람은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는 비록 자기에게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바른 생각과 깨달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여유를 가질 것이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상대의 잘못은 아마 과거의 나의 잘못이었고 또 미래의 나의 잘못일 수도 있다.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한

다면, 성급하게 남을 정죄하고 격노할 것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13:4). 우리가 상대방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잘못으로 인해 상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것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람은 반복해 하나님을 대항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노하기를 더디 하셨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구원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열거한다. 첫째는 긍휼과 자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의 부족과 연약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둘째는 겸손과 온유이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생, 특히 죄인인 인생에게 합당치 않은 교만과 높은 마음을 다 버리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과 온유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께서는 친히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교훈하셨고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오래 참음이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자는 상대의 부족을 볼 때도 오래 참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지신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연약한 형제들을 향해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13-15절, 용서, 사랑, 평안, 감사

[13절] 누가 뉘게 혐의[비난할 일]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그리스도]¹¹⁾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 자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마 18:15-17).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 잘못은 잘못이고 악은 악이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하여 이런 저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는 우리의 많은 죄와 부족을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을 때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형제의 작은 죄에 대해 더 잘 용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8:21-35에서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비유로 말씀해주셨다. 그 비유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받은

11) Byz C syr^p cop^{sa} bo Clement 등이 그러함.

것과 같고, 우리에게 잘못된 형제의 죄는 1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1만 달란트와 1백 데나리온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므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한 데나리온을 약 10만원으로만 보아도, 1만 달란트는 약 6조원 가량이며, 거기에 비해 1백 데나리온은 약 1,0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6조원과 1,000만원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이다.

지옥 갈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우리가 우리 동료의 잘못들을 용서하는 것과는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해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자의 잘못을 한두 번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교훈과 같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마 18:22) 용서 해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용서는 사랑의 첫걸음이고 또 참된 사랑의 기초이다. 용서 없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이 많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표현되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이웃을 위한 용서로 표현되고 증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증거된 대로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뜻이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단지 봉사의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고, 서로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던 것이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참 중요하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활 규칙인 십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하셨다(마 22:37-40).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또 그는 우리의 생활 지침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표현하셨다(요 13:34). 사도 바울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하였다(롬 13:8-10).

본문은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한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원어는 ‘완전함의 띠’(KJV)라는 뜻이다. 사랑이 완전함의 띠라는 말은, 사랑 자체가 완전한 덕이라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사랑을 통해 완전한 일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용서로 표현되는 사랑만이 교회가 서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하였다(벧전 4:8).

[15절] 그리스도의[하나님의](전통사본)¹²⁾ 평강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마 11:28),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12) Byz vg^{mss} 등이 그러함.

말라”고 하셨다(요 14:27). 사도 바울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다(살후 3:16).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낙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즉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6-7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교훈하였다.

개인의 마음의 평안은 또한 서로간의 화평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 서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족이며 또 우리는 사랑과 화목함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와 거짓이 혼합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고린도후서 6:14-16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했다. 특히, 요한계시록 18:2는 말세에 나타날 바벨론 곧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이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 즉 혼합주의적 세계일 것을 예언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사랑이나 교회의 하나 됨의 이름 아래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심지어 이방종교까지도 포용하려는 움직임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 미혹의 영인 사탄의 일인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 됨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를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고(사 43:7, 21), 또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었다(엡 1:6, 12, 14).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20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만한 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의 잘못을, 만일 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몇 번이든지 용서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십계명의 정신이며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를 완전함으로 묶는 띠이다. 참된 교회와 미래의 천국의 모습은 사랑의 교제이다.

셋째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해야 하고 또 서로 간에도 화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평안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은 평안이다. 그것은 실상 몸의 건강과 경제의 안정과 환경적 평안까지도 포함한다. 또 평안을 소유한 자는 서로 간에도 화목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믿음 없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16-17절, 말씀 충만, 피차 권면, 찬양과 감사

[16-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주를(전통본문)¹³⁾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과 그에 관한 말씀들을 다 포함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은 네 권의 복음서들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은 사도들의 서신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 속에’라는 말은 ‘너희 마음 속에, 즉 너희 생각과 사상 속에’라는 뜻이다. 목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로 충만해져야 한다.

요한복음 15:7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마 28: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딤후 3:16) 성경에는 불필요한 말씀들이 없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과 그에 관한 사도들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 특히 신약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다. 시편 1:2는,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13) Byz vg^{mss} cop^{bo-mss} 등이 그러함.

가 복되다고 말했다.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말씀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며 새벽 전에 바라고 묵상한다고 말했다(127, 97, 147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얻었을 것이 분명하다. 사도행전 17:11-12에 보면, 베뢰아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는 말씀의 충만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다. 시편 119:98-100,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남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 잠언 12:18, “혹은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거나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는 성경말씀의 충만함과 지혜를 얻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한 중요한 요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11, 14,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히브리서 3:13,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는 구절은 원문에서 “모든 지혜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

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번역할 수 있다(KJV, NASB).

본문은 찬송을 통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한다고 보인다. 찬송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은 얼른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예언적 노래를 기억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구약의 시편들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다. ‘시’는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고, ‘찬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들을, 또 ‘영적인 노래들’은 기타 회개와 간증과 권면의 내용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찬송가의 노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내용들뿐 아니라, 또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믿음에 유익을 주는 내용들이다.

또 우리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뿐 아니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계시록 5:13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말하였다.

‘마음에’라는 원어(엔 데 카르디아 ἐν τῇ καρδίᾳ)는 ‘마음으로’라는 뜻이다.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 목소리로만 해서 안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함을 보인다. 참된 찬송은 마음의 찬송이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지 못한다.

‘감사함으로’라는 원어(엔 카리티 ἐν χάριτι)는 ‘은혜로’(KJV) 혹은 ‘감사함으로’(NASB, NIV)라는 뜻이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관한 것이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찬송은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시 22:3). 시편은 우리가 ‘새 노래’ 곧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교훈하며(시 96, 98편)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다(시 150:6). 히브리서 13:15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교훈한다.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의 육신적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해야 한다.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시 96:9)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빌 1:10)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그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도 찬송도 올리며 선한 봉사의 일도 행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와 생명이시며 기쁨과 힘이 되신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들이 서로에게 교훈이 되고 권면과 격려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믿음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며 감사해야 한다.

18-21절, 가정 윤리

본문은 가정 윤리, 즉 가족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교훈한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니라.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5:22-23,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에 근거한 것이다(창 2:18; 딤후전 2:11-13).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신 다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돕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는 남편을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 창조의 본래의 질서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남녀평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풍조에 근거하여 성경의 교훈을 부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성경의 교훈은 옛 시대에 제한되지 않는다. 사도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살후 2:15).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을 누리는 일들에는 남녀나 사회 신분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지만, 가정과 교회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위치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서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베푸셨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전 13:4).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의 아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거칠게 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아내는 남편의 몸의 귀한 한 부분인 갈빗대로 만들어진 자이다. 그는 남편이 사랑의 품으로 품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자기의 행복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며,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몸을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가져오는 지혜로운 일이다.

성경의 교훈은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 즉 여성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고 학대하는 사상과는 다르다. 남존여비 사상은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섬기라는 사상이지만, 성경의 교훈은 쌍방적이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교훈하지만, 또한 동시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실제로 아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남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며 산다. 아내 사랑은 아내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고 그것은 곧 남편을 위한 봉사와 수고로 이어진다. 부부가 싸우면 사랑이 식어지고 행복도 사라지지만, 서로 사랑하면 가정은 피곤한 세상 생활에서 안식처가 될 것이다. 부부 사랑은 결국 가정의 행복이 된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셋째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모든 일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 즉 죄 되는 일 외의 모든 일을 가리킨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영어성경들의 번역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주 예수께서는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다(눅 2:51). 믿음의 여인 에스더는 부모처럼 자기를 길러준 친척인 모르드개에게 항상 순종하였고 왕후가 된 후에도 그러하였다.

부모를 멸시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치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악이다. 신명기 21:18-21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그 부모가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그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교훈하였다. 신명기 27:16,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21절]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 윤리에 있어서, 넷째로, 부모는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야’라는 말씀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음을 보인다. 물론 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녀를 격노케 말라’는 것은 교훈과 교육을 전제한 것이다. 무관심하면 격노케 할 것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려고 할 때 그를 격노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격노케 한다는 것은 성질을 나게 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보통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서 일어난다. 부모의 정당한 명령과 처분에 화를 내는 것은 불순종이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부당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대하면 자녀의 마음이 상하게 되며 그것은 자녀 교육에 유익보다 해가 된다.

자녀는 마음이 상하면 마음 문을 닫고 낙심하고 의욕을 잃고 열등

감을 가지고 자포자기하거나 반항적이게 되기 쉽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교훈과 교육은 유익보다 해가 된다. 자녀 교육은 성경의 교훈 안에서 사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를 격노케 하거나 낙심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또 필요하다면 체벌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잠언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나 그때에도 무엇이 잘못이며 왜 잘못인지 충분히 이해시킨 뒤 때를 들어야 하고 감정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 ‘자녀를 격노케 말라’는 교훈은 체벌도 미운 감정으로도 아니고 사랑의 심정으로 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을 돕는 자로 만드셨고 남편을 그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아내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한다. 그는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희생적인 온전한 사랑이다. 남편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일 뿐 아니라, 아내나 남편 자신에게도 행복이 된다.

셋째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정신이며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약속된 의무이다.

넷째로, 부모는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고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책망하고 체벌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때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

3:22-4:1, 직장 윤리

[22절]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하나님]¹⁴⁾를 두려워하여 성실한(하플로테스 ἀπλότης)[단순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경은 주인과 종의 존재를 인정한다. 우리가 그것을 노예제도로라고 부른다면,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예제도 자체는 악이 아니다. 옛 시대에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종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있었고(창 12:16), 욥에게도 종들이 있었다(욥 1:3). 사람이 빛을 많이 졌을 때나,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흔히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노예제도는 그 자체보다, 주인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

인류 역사상 노예제도는 많은 폐해가 있었다. 종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학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의 노예제도는 달랐다. 성경에는 종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었다. 물론 종은 종이므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고 자유와 권리의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는 법을 통해 히브리 종들이 6년간 일한 후에 제7년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출 21:2). 또 여종을 취한 주인은 평생 그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하게 하셨다(출 21:10). 또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아주게 하셨다(출 21:26). 잠언 12:10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짐승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선한 사람들이 종들에게 잔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은 노예제도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종의 관계가 있다. 그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계약에 의한 지시와 순종 관계이다.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간에는 약속된 주종

14) Byz p⁴⁶ it^d vg^d 등이 그러함.

의 관계가 있다. 그것은 강제적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종 관계이다. 물론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이 원치 않는다면 또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면, 해지할 수 있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본문의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관계나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본문은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 즉 죄 짓는 일 외의 모든 일을 가리킨다. 그 모든 일은 합리적인 일뿐 아니라 때때로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일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육신의 주인들’이라는 말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조된다.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종들에게는 육신의 주인이 있다. 그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거역하지 않고 잘 따르는 것을 말한다. 순종에는 말대꾸나 말대답이 합당치 않고 단지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좋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 많은 변명을 할 필요도 없다. 다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기회를 보아서 겸손한 태도로 주인에게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기 쉽다. 그래서 나쁜 종이라도 주인이 볼 때에는 일을 잘한다. 그러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종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일에 충실한 종이다. 주인이 안 보는 데서도 잘해야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성도는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윗사람이 보는 데서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그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교훈한다. ‘주를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는 뜻이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할지 이것저것을 계산하지 않고, 요령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임무,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단순함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23-25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편애함, 불공정함이 없느니라].

좋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합리적인 일이나 무리한 일이나, 죄짓는 일만 빼놓고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하듯이, 종은 주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유업의 상’은 천국에서의 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삶의 현실에서 주 하나님을 섬긴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고용인은 고용인대로, 피고용인은 피고용인대로,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일반 성도는 일반 성도대로, 우리는 다 세상의 직업에서나 교회의 직분과 직책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그 결과로 우리는 장차 영광스런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때 우리가 땅 위에서 우리의 처한 현실에서 의롭고 선하게 일한 대로 거기서 하나님께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비록 그것을 은밀히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함이나 불공정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현실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4장: 그리스도의 일꾼들

[1절] 상전들[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들은 오늘날 고용주들이나 직장 상사들에게 적용된다. 고용주들이나 직장 상사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을 대할 때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편애하는 마음을 버리고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평가할 때, 고향이나 학교 등 자신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오직 그들의 인품과 실력과 충실성을 따라 평가해야 하고, 또 그들의 일한 대가를 그들에게 충분히 주어야 한다.

고용주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피고용인들과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할 이유는 하늘에 계신 참 주인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의롭고 선한 자와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공의로 보우하신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해야 한다. 그들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섬긴다. 오늘날 직장의 아랫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고용인들이나 윗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주인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는 불공평하게 행하지 말고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용주나 직장의 윗사람은 피고용자들과 직장의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그는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

2-6절, 기도, 지혜, 말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 자신의 죄와 부족에 대한 고백의 내용, 또한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며 신앙생활의 힘이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이다. 누가복음 21:34-36,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닷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人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특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이다. 잠언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평과 원망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며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3-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말씀의 문(원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서신들에

서도 이런 교훈을 했다. 에베소서 6:18-19,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가?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특히 전도와 목회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기도보다 더 힘있는 후원은 없다. 그것은 물질적 후원이나 말의 격려보다 더 큰 후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후원을 요청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최대의 후원은 그들을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후원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그의 대속 사역을 가리키며, 또 그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도 포함한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내용을 ‘마땅히 할 말’이라고 표현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내용은 사도시대로부터 분명했다. 그것은 또한 가감할 수 없는, 확정된 내용이었다. 그는 갈라디아서 1:8-9에서 그가 전한 복음, 곧 그들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음은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할 내용이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바 되었다.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은 반감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눅 6:26).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고(딤후 3:12), 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했다(딤후 4:5).

[5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최선용하라.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킨다. 성도는 불신자에 대해 지혜롭게 행해야 하며 특히 세월을 아낌에 있어서 그러해야 한다. 성도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15-17,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성도는 TV 시청이나 오락이나 취미 생활에 너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돈을 버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돈을 버는 일에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성도에게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공적 예배, 전도, 교회 봉사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특히 불신자들을 향해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단순한 교제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교제해야 한다. 전도는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전도의 목표가 없는 교제는 참된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이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간을 하듯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하듯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싱거운 말이나 짠 말을 피해야 한다.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농담이나 웃기는 말, 허탄한 말, 거짓말은 싱거운 말이고, 남의 마음

을 아프게 하는 말은 짠 말일 것이다. 우리는 진실하고 선한 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에베소서 4:29-32,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救贖)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1-2,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항상 우리의 말을 가다듬으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 것이다.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이다(약 3:2).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으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약 3:8, 27).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는 항상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즉 전도와 목회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일이다.

셋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 우리는 짧은 일생에서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말고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가치 있게 써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하듯이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아 선하고 유익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선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

7-18, 그리스도의 일꾼들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본절은 두기고에 대해 소개한다. 첫째로,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명칭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보이는 아름다운 명칭이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요 13:34).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받는 형제들이어야 한다.

둘째로,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일꾼’이라는 원어(디아코노스 δίακονος)는 ‘집사’와 같은 말로서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뜻이다. ‘신실한’이라는 원어(피스토스 πιστός)는 ‘충성된’이라는 뜻으로 봉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이다. 봉사자는 자기 직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고전 4:2).

셋째로,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었다. ‘함께 된 종’이라는 말(슌둘로스 σύνδουλος)은 주 예수께 함께 복종함을 나타낸다.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종들이다.

[8절]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그로 너희 사정을 알게 하고(전통본문)]¹⁵⁾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은, 첫째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둘째 그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위로한다’는 원어(파라칼레오 παρακαλέω)는 ‘위로한다, 격려한다, 권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교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한다. 그들이 때때로 교인들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15) Byz p⁴⁶ C vg syr^D cop^{sa-mss} bo geo 등이 그러함.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는 전에 도망친 종,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몬 16)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수종자가 된 자이었다(몬 11).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증거한다. 아마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종이었던 그가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이다.

[10-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아넵시오스 ἀνεψιὸς)[사촌]¹⁶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는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役事)하는[일하는] 자들(동역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는 특별히 바울과 함께 갇힌 일꾼이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다. 그는 전에 바울과 힘든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행 13:13; 15:37-38), 후에 바울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를 영접해야 했다. 그 다음,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언급되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세 사람은 다 할례당 곧 할례 받은 순수한 유대인들이었다. ‘이들만’ 즉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울의 동역자(同役者)들은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었다. 사도 바울의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그들은 독립 운동의 동지들보다, 6.25전쟁의

16) Thayer, BDAG, NASB, NIV.

전우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었다.

그들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다. 복음 사역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쳐진 복음의 일꾼들에게, 생각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가지는 것보다 더 나은 기쁨과 위로가 무엇이겠는가?

[12절] 그리스도 (예수)¹⁷⁾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페플레로메노이 *πεπληρωμένοι*)[온전하게](전통본문)¹⁸⁾ 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서신 초두에(1:7) 증거된 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일꾼이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된다. ‘종’이라는 말은 순종을 나타낸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애써 기도했다. 이것은 특히 복음의 일꾼들의 일차적 사명이다.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온 교회를 위해, 교사들과 구역 권찰들은 말은 반 학생들과 구역 식구들을 위해 항상 애써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적 깨달음과 지식, 부분적 믿음과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 믿음과 생활을 가져야 함을 보인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신구약성경에 잘 계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한다. 주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심이다(엡 4:12). 목사들의 첫 번째

17) Byz p⁴⁶ it^d vg^{mss} syr^p 등은 ‘예수’를 생략함.

18) Byz p⁴⁶ syr 등이 그러함.

임무는 모든 성경을 충실히 강론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13-15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문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눅바와 그 여자의[그의(전통사본)¹⁹]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함을 증거하였다. ‘눅바와 그의 집’이라는 전통사본 본문은 눅바가 남자임을 보인다.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 역사의 초기에는 교회 건물이 없이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가 있었던 것을 증거한다. 로마서 16:5의 전통사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였다.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본문은 성경 읽기의 의무를 가르친다. 성경, 특히 사도들의 서신들은 우리가 읽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의로운 인격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된 선물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한 지역 교회에 보내진 것이지만, 모든 교회들이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지들을 통해 주신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의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17-18절]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찬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²⁰

바울은 아킵보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권면하였다. 로마서 12:5-8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각 사람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섬기는 직분, 가르치는 직분,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

19) Byz syr^p 등이 그러함.

20) Byz it^d vg syr^p cop^{bo-pt} arm 등에 있음.

분, 구제하고 공활을 베푸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 등을 주신다. 아킵 보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곧 주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완수해야 했다.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 직분을 완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충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유스도는 바울과 함께 로마 옥에 갇혀 있었다. 11절,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일하는] 자들[동역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며 충성하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목회의 목표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서게 하는 것이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책을 읽고 믿고 행함으로써이다.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셋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17절,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애에 주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고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섬 메이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복음주의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천주교회비평 등.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000년 7월 23일 빌립보서 강해 1판

2000년 7월 23일 골로새서 강해 1판

2020년 7월 23일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저 자 김 효 성

발 행 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faith@hjdc.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ISBN 978-89-98821-57-9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창세기 강해**. [3판]. 359쪽. 6,000원.
2.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판]. 204쪽. 4,000원.
3. 김효성, **레위기 강해**. [2판]. 164쪽. 4,000원.
4. 김효성, **민수기 강해**. [2판]. 182쪽. 4,000원.
5.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6.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강해**. [2판]. 222쪽. 4,000원.
7.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2판]. 233쪽. 4,000원.
8. 김효성, **열왕기 강해**. [2판]. 217쪽. 4,000원.
9. 김효성, **역대기 강해**. [2판]. 256쪽. 5,000원.
10.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2판]. 129쪽. 3,000원.
11. 김효성, **욥기 강해**. [2판]. 195쪽. 4,000원.
12. 김효성, **시편 강해**. [2판]. 704쪽. 10,000원.
13. 김효성, **잠언 강해**. [2판]. 624쪽. 8,000원.
14. 김효성, **전도서 강해**. [2판]. 88쪽. 2,000원.
15. 김효성, **아가서 강해**. [3판]. 88쪽. 2,000원.
16. 김효성, **이사야 강해**. [2판]. 398쪽. 6,000원.
17.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2판]. 359쪽. 6,000원.
18.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2판]. 293쪽. 6,000원.
19.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6,000원.
20.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3판]. 223쪽. 5,000원.
21.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2판]. 373쪽. 6,000원.
22.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281쪽. 6,000원.
23.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2판]. 239쪽. 4,000원.
24.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2판]. 122쪽. 3,000원.
25.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2판]. 100쪽. 3,000원.
26. 김효성,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4,000원.
27.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2판]. 109쪽. 3,000원.
28.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2판]. 145쪽. 4,000원.
29. 김효성,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3,000원.
30.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 2,500원.
31.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0판]. 34쪽. 600원.
32.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4,000원.
33.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판]. 108쪽. 3,000원.
34. 김효성, **기독교 윤리**. [6판]. 240쪽. 4,500원.
35.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5판]. 182쪽. 무료.
36.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6,000원.
37. 김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38.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193쪽. 6,000원.
39.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3,000원.
40. 김효성, **이단종파들**. [6판]. 70쪽. 700원.
41.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6판]. 44쪽. 2,000원.

☆ 주문: 전화 02-334-8291, 이메일 oldfaith@hjdc.net

☆ 계좌: 농협 301-0258-7000-8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정동교회